

작가 서영은은 늙지 않는 작가다..... 소녀적 외양과 내면의 건고함이 작가 서영은의 자연연령을 짐작하기 못하게 한다.... 그런 그가 이제 햇수로 등단 35년, 올해로 회갑을 맞는다.... 문단생활로는 원로에 속할 것이나 누구도 쉽게 서영은 선생을 원로작가로 대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선생이 그간의 작품들을 통해서 보여준 절대를 향한 끝없는 추구하고 한 곳에 정체되지 않으려는 태생적 자유로움과 조로하지 않는 현역정신에서 기인할 것이다....

세속적 삶을 넘어 절대진리 속으로



‘동성애’라는 파격적 소재의 소설 《그녀의 여자》가 화제를 일으켰던 것은 지난 2000년도다. 3년이 지난 지금, 잠시 휴지기로 보아도 무방한 것일까. “그렇진 않아요. 작가는 글을 쓰고 있지 않다고 해서 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작가들은 침묵하는 시간도 집필의 기간으로 봐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품고 있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작가들도 작품을 낳기 위해 품고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영은 선생은 양적으로 쉽게 밀어낼 수 있는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다. 글을 쉽게 쓰지 않는다는 것은 체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존재증명에 가까운 글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존재를 탐구한다는 큰 틀에서 볼 때, 삶을 살면

서 ‘이런 것이었구나’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제서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라는 것이 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결국 내 삶과 같이 가는 것이니까요.”

화제를 몰고 왔던 《그녀의 여자》 같은 경우도 그랬다. “이젠 문학기사도 화제성에 초점을 맞추어 재포장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 탓인지 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으로 해석되어 작가로서 섭섭했죠. 작품의 본질은 결코 동성애라는 소재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제가 겪었던 상실감을 통해서 이를 뛰어넘는 절대를 붙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더 이상 열렬히 추구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해도 늘 뭔가를 추구하는 탄성이 멈춰지지 않아서 계속

뭔가에 집착하게 되는 문제를 다루고 싶었거든요. 동성애란 그런 절망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소재였을 뿐이고요.”

그녀는 스스로 칭하듯 낙타 같은 사람이었다. 1983년 이상문학상을 받았던 〈먼 그대〉에서 작가는 자신의 분신 같은 주인공 문자를 통해 ‘짐을 엮고 또 엮고 그러는 동안 자기 속에서 그 짐을 이기는 영원한 힘을 이끌어낸 불사의 낙타’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제 소설 속 인물들 중에서 제 자신이 가장 많이 투사된 것이 문자예요. 어떤 것을 향해서 열렬하게 돌진하는 성향 같은, 내가 가진 코드를 다소 반영한 인물이거든요. 극단의 절망적 상황이라 해도 도망가지 않고 치러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의미가 없다, 어렵다, 힘겹다’ 하는 것일수록 이 인물은 그것을 기꺼이 치러냄으로써 그 속에서 생의 의미를 발견해 내겠다-하는 태도를 가진 셈이죠.”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문자의 이런 태도는 이 세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깊숙이 깨닫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세상이 무가치하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살아야 하죠. 때문에 현실이 황폐하다고 해서 굳이 피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이후 선생은 일생을 지배했던 가치관이 통렬히 뒤집히는 경험을 한다. “7~8년 전부터인가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삶 전체를 하나의 제의로 생각하고 헌신했다고 해도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끝이 삶을 막아서고 있고요. 그 앞에선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더군요. 내가 믿었던 가치가 결국 환영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니 정말 막막하더군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7년 동안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해온 성경공부이다. 처음 2년 동안은 내면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인지 성경의 뜻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조금씩 성경의 말씀에 젖어갔다. “7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절대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말하자면 일차적 차원의 물질적 세계에만 기대어 삶

의 의미를 찾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절대진리라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우리 삶을 궁극적으로 떠받칠 수 있는, 시간으로 영원하고 공간으로 무한한 세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놀랍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했어요. 이제는 두 세계를 통합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만 돌아가고 안쪽을 살필 여유는 없다. 문학을 하는 이들조차 그렇다. “현대사회는 조용히 침잠해서는 아무것도 획득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자기가 삶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어간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 살고 있는 거죠. 작가들은 이런 사회현실 속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워요. 고치 속의 애벌레처럼 내면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져야 해요. 갑자기 외양을 바꾼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작가라면 내면의 변화에 인내심을 갖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죠.” 유독 사물의 안쪽에 대해 이야기했던 《안쪽로의 여행》이라는 산문집은 그런 깨달음의 한 산물이다.

그녀는 문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소설의 형식에 대해서 가르치기보다 ‘작가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진다. “직업을 택하듯이 문학을 선택해선 안 돼요. 작가가 되기 위해선 삶 전체에 대한 소명의식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긴 세월 동안 안팎으로의 부침을 이기고 오로지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녀는 시대에 따라 문학의 외양은 많이 바뀌지만 문학이 가져야 하는 본령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소설들을 보면 문체는 감성적으로 세련되어졌지만 소설의 인물, 구성이나 주제에 있어서선 구태의연한 면이 많아요. 작가들 자신이 좀더 넓게 세계를 체험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체험 자체를 어려워하는 거 같아요. 삶의 벼랑까지 가보면서 획득한 자기 통찰력을 작품에 녹여내야죠. 그래서 피상적 삶에서 놓치고 있는 점을 사람들에게 예시해 줘야 합니다. 그게 작가예요.”

스물넷에 만나 사후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김동

리 선생과의 오랜 인연은 전생에 전생이 얽힌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그 분을 통해서 한 생애가 걸릴 만큼 치러야 할 만한 것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게 모르게 자아를 낮추는 훈련을 선생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혹독하게 치렀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이 마음자리에 오게 된 거니까 저로서는 인연의 값을 웬만치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헌데 또 모르는 일이죠. 무엇이 더 남아 있을지...”

올해 안에 선생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올 두 권의 책을 독자들에게 약속했다. “형식면에서는 에세이와 소설이 혼합될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깨달은 것의 증거로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의 삶을 하나의 실험대상으로 던지는 거죠.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을 객관적으로 짚어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삶의 순리를 깨닫지 않는다면 대단한 명



예와 부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선생은 회갑에 이르렀으나 자분자분히 삶과 문학을 애기하는 목소리에서는 꽤기마저 느껴진다. 내면의 단단함이 더 강한 선생의 회갑을 기념해 후배 남자작가들은 헌정 소설집을 준비하고 있고, 각계의 문화인사들은 회갑기념집을 출간하려고 한다. 선생은 이런 일련의 작업들에 대해선 고맙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단다.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고구마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마당에 당혹스럽죠. 하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굉장히 신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책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순수해서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문단에서 파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해준 것도 없고 앞으로도 해줄 가능성도 없는 사람일 텐데 말이죠.”

통렬했던 깨달음 탓인지 선생은 소설이외에도 마음을 기울여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외국인 노동자, 아내의 문제에 애정을 가지고 돕고 싶다는 것. 서너 명이 되더라도 꼭 모임을 꾸려보겠다는 희망을 키워간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의 삶 속으로 남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내가 내가 아니고 우리구나’ 하는 것이더군요. 처음에는 가족, 친구, 나아가서 사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얽히고 얽혀서 이 나이쯤 되니까 더 이상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제는 국가나 민족이라는 구분은 무의미한 거 같아요. 인류라는 큰 관점에서 세계를 해석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려 애쓰지 않고 길밧에 취해 자신만의 만족 안에서만 머물고 마는 문학은 이미 문학으로서 용도 폐기되어야 할 존재에 불과하다.

문학 이전에 삶이 먼저 있더라. 서영은 선생은 인터뷰 말미에 ‘이제 소설가라기보다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고 할 만큼 종교로 대변되는 절대적 가치를 향해 서 있었다. 그것은 30년 넘게 존재의 의미를 형상화하려던 한 작가의 당연한 귀결점으로 보인다. **이문**

취재 강경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